

Missionary's Letter

“*쁘레아 쁘러띠은 쁘!* God bless you ” 살롬, 캄보디아국립기술대학의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입니다. 이곳의 소식을 담아 함께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 늘 잊지 않고 힘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Cambodia (NPIC)

대학 수업



캄보디아내 전염병이 돌았던 소식^(동역서신 No. 11)을 수업시간에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학과의 모금활동으로 연결되며, 후원금을 모아 병원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 불 정도의 액수로 자신의 지갑을 열어, 먹을 것을 아껴, 모은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모금을 주도하던 한 여학생이 급성 맹장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를 위로하고 교수로서 그의 학사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모두 그리 큰 일들은 아니지만, 이심전심의 훈훈한 경험이었습니다. 8월말 종강을 하며 결국 40 명의 학생중 13 명이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평소 수업과 과제에 소홀하던 학생들이 시험때면 모두 참석하고, 그러면 졸업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는 관행적 기대를 가진 것이 신기하고도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후 살아가면서 수고와 참 된 결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40 명중 13 명은 최저점을 얻지 못해 낙제하였고, 이후 졸업을 위한 추가 학습과 과제, 시험을 봐야했습니다.

싸레드



지난 학기 조선교사의 영어 수업을 들었던 관광학과 4학년 학생 중 싸레드(승려)란 학생이 있었습니다. 최근 졸업을 하게 되어 정선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났던 싸레드가 승복을 벗고, 앉아서 고기반찬(!)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나 물었더니, 12년이나 했던 승려일을 접고, 최근 관광회사에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즐겁게 교제하고 또 4영리 복음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불교 나라이어서 평소 승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10대부터 고승까지 문화와 생활에 일부분이 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이번 싸레드를 통해 저희도 승려도 동일한 전도대상자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복으로 갈아입은 싸레드, 이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간증이 있는 복음전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NPIC 수요 예배



NPIC 예배는 9월 중순부터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중, 고난의 중, 승리의 중’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이곳의 한인 교수 선교사 모두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신 1장 1절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이기에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뛰쳐나와 국립대학 최초의 기독교화란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일어나 복음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NPIC 예배에 더욱 기쁨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된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선교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영감이 날마다 더하시길 기도해주세요.

세종학당



작년 가을에 시작된 세종학당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 성장되어 왔습니다. 올 가을부터는 NPIC 내에서 뿐 아니라, 인근의 초등학교 두곳과, 프놈펜 시내의 공단지대에서도 강좌가 새롭게 개설되어 진행중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계기로 한국 KBS 방송국에서 세계 속의 한글 열풍, 교육에 관한 특집 보도가 9시 뉴스에 제작되었었는데, 그것에 하나로 저희 프놈펜 세종학당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몇달간 가르치던 학생들이 인터뷰도 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도 한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수료식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은 한달전부터 주일에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 성경을 잡은 이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진정 살아계신 구주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시길 기도드립니다.



KBS 9 뉴스 (10월 9일)

예배자로, 제자로 **세워서 보내는** JEJA House & Church 주님의 제자교회

티아



주언이 학교의 캄보디아 친구 엄마로 처음 만난 티아는, 그후 캄보디아의 루디아로 품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조선교사와 1년정도 매주 만나 영어 공부를 하며 교제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서신 이후 감사한 소식은 티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 근처의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티아가 그 가정의 복음의 귀한 씨앗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가정으로 서게 하시길 사모합니다.

리더훈련



리더쉽 공부는 천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첫번째로 교리 문답을 캄보디아어와 영어 두가지로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에는 대상에 따라 쓰는 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승려나 왕, 신에 대해서 쓰는 말은 더욱 엄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처음 선교사들도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때, 왕이나 신에게 사용하는 언어들로 하셨습니다. 일반 용어와 격을 다르게 함으로서 그 권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취약점은 성경의 용어를 들으면 캄보디아 사람은 자기들이 이해했던 불교의 신, 왕에 대한 호칭으로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천지신명으로 부르던 하느님을 그대로 차용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참되시고 유일하신 신이며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고 우상이다란 것을 설명,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리더쉽 훈련에 가장먼저 도입한 것이 교리가 된 것입니다. 질의문답식으로 하나씩 간결하고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작업입니다. 처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걸라고 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진리를 새겨넣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영어반, 주중 자매모임도 계속 귀한 만남과 가르침의 장으로 삼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프놈펜에서 3 시간 떨어진 캄뵁에서 왔던 분로얏이 최근 동생 찐다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동생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후, 찐다가 사촌인 우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덤에게는 형이 한명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면 또다른 사람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아이들이 생일때 사탕을 방 곳곳에 숨겨 놓으면 하나씩 찾으며 좋아하는 것처럼, 저희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는 것이 기적과도 같고, 선교사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 생명을 건지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24 개 지방에서 온 이들을 만나 제자삼고 싶습니다. 훗날에는 이들이 돌아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야하리라 바라봅니다.



단기선교

작년 9월에 이어 오는 11월 9-11일 두번째 캄뵁 짬 단기선교를 가게됩니다. 작년의 참석했던 제자들을 팀장으로 삼아 순서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 사이 새롭게 오게 된 이들로는 단기선교의 의미와 참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첫 단기선교는 이후 저희 집에서 주일 성경공부로 연결되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두번째의 단기선교가 또한 이후에 교회와 예배 사역에 또다른 계기가 될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약하다는 심약한 사고와 생활 습성에 익숙해 있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단기선교를 통해, 충분히 그들이 가진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을 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과 고아원 선물 등의 여러 경비가 필요합니다. 몇달간 현금을 걷어 모아왔지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두번째 캄뵁 짬 단기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번에도 가면 아이들을 신나게 뛰게 할 생각입니다. 그 멋진 사진 최선을 다해 담아오겠습니다 ☺



2011. 9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멋진 우리 아이들, 온유와 주언이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벌써 자기들 인생의 1/3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살았습니다 ☺ 그 사이 키도 많이 컸고, 또 살도 조금은 까매진 것 같습니다. 간혹 거리에서 한국에서 오신 단기팀 분들을 보게되면, 원래 우리들 피부가 저랬었다.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 조선교사 여동생 결혼으로 2주 남짓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 병원 검진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것은 온유 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잦은 중이염으로 고막에 약간의 영구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비인후과를 찾았을때, 고막이 정상으로 이상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믿고, 그 축하의 뜻으로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식이었던 것이었을까요. 9월 초 다시 프놈펜에 돌아온 후, 바로 온유는 중이염, 주언이는 장염에 걸렸습니다. 지금 온유는 다 나았고, 주언이도 나왔는데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8시면 피곤하다고 잠도 듭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특히 주언이의 식욕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동역자님, 지난 월요일에는 캄보디아의 현왕의 아버지며, 프랑스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켰던 노로돔 시하누크 1922-2012 선왕이 서거했습니다. 더불어 요즘 열왕기서를 묵상하며 세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저희의 삶이, 그리고 저희가 만나는 이들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소중히 기억되기를 이 때에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늘 감사드리며 기도제목 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교사로 삼아주시길
2. 학교와 교회 사역에 성령의 은혜와 기름부으심으로 영혼구원의 큰 기쁨터로 삼아주시길
3. 감빵잡 단기선교(11. 9-11)가 학생들의 삶의 전환점이 되며,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길
4. 온유 주언이의 건강(귀. 소화)과, 성령으로 매일 무럭무럭 자라나길

2012년 10월 20일

정지웅, 조은영, 온유, 주언 드림

후원안내 미국에서: Bank of America. Account: 0039 3599 2109 Routing: 026009593

* Check: Jiwoong Chung: 11309 Megan Dr. Fairfax, VA 22030

한국에서: 국민은행 270102-04-077618 (정지웅)

총무: 강재훈 (한국) 010-8280-4508 Jaekang04@yahoo.com 김연왕(미주) 571-232-2271 jamesywkim79@gmail.com

Missionary's Episodes

Episode 1 - 돌아온 탕토



저희 집의 또다른 식구, 스파클리(토끼) 입니다. 매일 풀을 주는 것은 온유담당으로 벌써 1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오후에 집에 오니, 토끼장 문이 열려있고 스파클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뛰쳐 나가, 어디까지 갔었을까요.. 특히 온유의 상심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후 벌어진 것입니다. 토끼는 없는데 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길 이삼일.. 아직 생명을 건질(?)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빈 집에 풀을 넣어 주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금요일) 아침 다시 찾았습니다. 험한 세상 다 겪고, 회심하여 돌아온 '탕토'에게, 싱싱한 야채로 잔치를 차려주었습니다. ☺

('하루가 10년 같았어요' - 스파클리)

Episode 2 - Kun An



사진 속 청년은 NPIC의 건축과 3학년인 끈안입니다. 이 학생을 보면, 옛날 만화 스펀지밥에 나오는 똑똑이 스펀지밥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말이 많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사고도 많이 치는.. ☺ 믿음이 아직 없고, 주말에 가게를 보느라 예배에 잘 못 나오는 중, 얼마전 오랜만에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예배후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날의 메뉴인 볶음밥 요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끈안이 자진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듯) 주걱을 들고는 후라이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밥알들이... 동남아 쌀이 원래 좀 날라간다고 해도,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끈안에게는 미워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모임을 다 마친 후, 저희들은 설거지와 기름 청소애 좀 먹었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많이 웃은 하루 였습니다.

Episode 3 - Lunch box



어느 주일 예배 후 점심시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못 올 것으로 알던 제자 몇이 늦게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조선교사와 눈신호를 맞춰 우선 학생들 배부르게 다 퍼주었습니다. 바닥에 둘러 앉아 기도후 식사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저희 자리가 빈 것을 본 형제 둘이 뭔가 서로 쪽닥거리더니,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 봉지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족 밥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맘도 부르고, 피차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 END -